

## 수도권본부, '15년 사업비절감 경진대회 개최!!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작년에 이어 2015년에도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여 절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공사·감리단·공단이 함께하는 사업비절감 경진대회를 3월27일 개최했다.

2월24일부터 사업비절감계획을 접수하여 올해 목표 90%의 절감계획을 발굴했다. 또한, 우수절감 아이디어가 총 3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12건을 참여했다.

총 30건의 절감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거친 7건에 대한 발표회가 3월27일에 있었으며, 수인선복선전철 인천역사 신축공사 현대건설(주) 김영곤과장이 "지하역사 선로 외측벽 마감재 삭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건설기술처 나현 과장의 아이디어와 심희재 대리의 아이디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각 현장에 전파되어 유사사례를 찾아 금년도 절감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 사업비절감 경진대회에서는, 시공사 직원이 사업비절감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어 사업비절감 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 감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이 있음

<수도권본부 서문원 기자>



<'15.3.27 공사 추진>



해자는 10만 여주시민이고, (주)마임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우려됨을 (주)마임측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한 결과 원만하게 대타협을 이루게 되었다.

(주)마임측은 지장수목 등 손실 보상 이전에 자진해서 신속히 이식작업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성남~여주 전 구간(57km) 중, 마지막 미 착공 개소를 본격 착수('15.3.27)하게 되어 그동안의 현안사항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수도권본부는 이 구간을 주공정(C.P) 개소로서 특별 관리할 것이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2015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후속공정 노반 인계인수를 종합공정계획(IPS)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김형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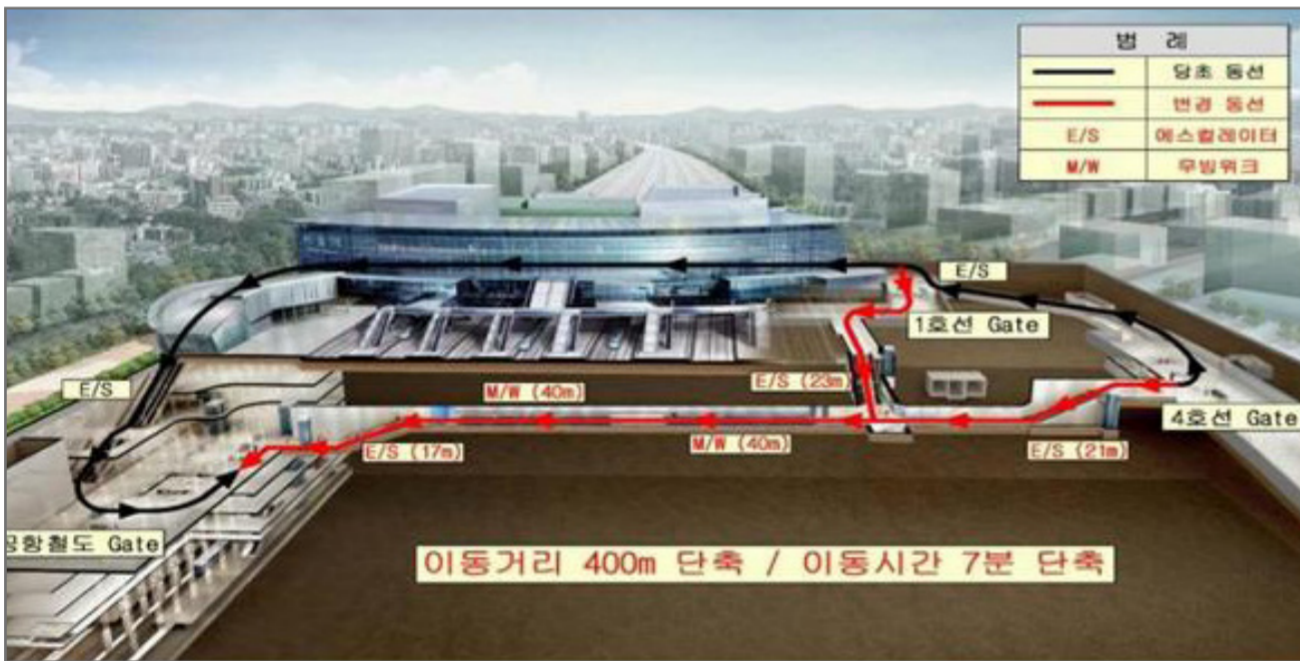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일원에 조성한 휴양시설로서 평소 각 기업체의 연수, 드라마(시크릿가든 등) 및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 시설

<마임비전 빌리지 전경 및 철도노선>



## 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1,4호선) 환승통로 개통!

- 1일 평균 13만명 이용, 서비스 수준 "B등급" 으로 향상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인천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을 지하로 연결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3월28일(토) 개통을 하였다.

서울역 환승통로 개통으로 환승 이동거리가 700m에서 300m로 단축되어 환승시간 7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 공항철도 서울역(지하7층) · 서울역 대합실 · 지하철 1,4호선
- 공항철도 서울역(지하7층) · 환승통로(지하3층) · 지하철 1,4호선

서울역은 철도교통의 중심역으로 경부선·공항철도·경의선·지하철(1호선·4호선) 등 총 1,700회(왕복기준 1일 운행횟수)가 운행되며, 이용객이 1일 평균 13만명으로 서비스 수준이 "C"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급변 환승통로 개통으로 환승시스템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객의 분산효과로 서비스 수준 "B" 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역 환승통로는 환승 시 개·집표 게이트 통과를 위해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 최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와 외국인 방문객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도권본부 박윤식 기자>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 초기 지역주민들의 공감 유도 -

수도권본부(건설기술처장 석종근)는 2014년도 10월에 착공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15.3.24)는 연천군 청산면사무소와 동두천시 소요동 주민센터에서 2차례 진행되었으며 공사관리관, 현장 감리단 및 시공사 직원, 인근지역주민 등 14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주민들은 철도건설을 하면서 학담교~초성리역간 고가화, 하봉암역 신설 또한 현재 양주시에서 회차하는 전철을 동두천에서 회차하여 양주역과 같은 운행 편수로 증설 등을 요구하였으며, 공사중 소음·진동, 하봉암동 일조권 침해 문제, 창말 지하차도 구간은 지하도로 시공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고가화는 적정성 여부 등 자체 검토중이고, 하봉암역 신설은 기본설계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차 문제는 철도운영기관 철도공사와 협의할 사항이며 소음·진동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인접구간은 방음벽이 반영 등 사업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

<수도권본부 김한묵 기자>

## 성남~여주 마지막 미 착공개소 민원해결

- 수도권본부, 사업추진 노력 결실 '16년 개통 이상무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마지막 미 착공 개소 마임구간(판기(현)47k160~47k380, L=220m)의 공사를 본격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마임구간 마임비전 빌리지\*는 철도노선이 단지의 정중앙을 관통(깊이=5.3m, 폭=40m 절토)함에 따라 (주)마임측에서 시설물의 훼손 및 기능 상실 등을 우려하며 극렬히 공사추진을 거부하여 그동안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구간이다.

수도권본부는 이 구간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도권 전철을 이전시키지만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최대 피



'15. 3. 24. 10:00 ~ 소요동 주민센터

'15. 3. 24. 14:00 ~ 소요동 주민센터